

# 하갈의 딸들: 무슬림 여성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

김아영 \*

- I. 서론
- II. 이슬람이전 시대의 여성
- III. 이슬람의 등장과 여성관의 변화
  - 1. 무함마드의 부인들
  - 2. 여성에 대한 이슬람의 원형적 이상의 변화
- IV. 꾸란에 나타난 여성관
- V. 이슬람 제국의 확장이 미친 여성관의 변화
- VI. 여성 억압을 위한 이슬람의 장치
  - 1. 히잡
  - 2. 일부다처제
- VII. 결론

---

\* 햇불트리니티 한국이슬람연구소 소장,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학 교수  
(Director of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Assistant Professor, Mission/Inter cultural Studies at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

## ABSTRACT

Ah Young Kim

More than a half billion women in the world are Muslim. Concentrated in a broad belt from Senegal to the Philippines, with the largest number on the South Asian subcontinent, these women may also be found in such countries as Norway, Papua New Guinea and Korea as well as throughout many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us they form a worldwide gender community.

Few issues in Islam and Muslim culture have attracted more interest as issues involving women. For many non-Muslims, the subject of women in Islam is characterized by the images of deserts and harems, chadors and hijabs, segregation and subordination. Some Muslims counter that Islam has liberated women, but at the same time it is true that they often present an ideal (ideal of Muhammad) not accompanied by the problems and issues encountered in the diversity of the Muslim experience.

The study of women in Islam and Muslim society is complex, reflection the diverse and varied realities of Muslim women and Muslim societies throughout ages. To obtain an apt perspective on Muslim women, one must look at the actual condition of Muslim women in diverse time periods and sociohistorical contexts and this study is for that goal.

For that aiming, an overview of the status of women in Pre-Islamic cultures,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Islamic scripture, Quran that are relate to women and the manner in which this text - or it's presumed content - have been interpreted over the centuries, forms the essential part of this article.

The last of the great monotheisms, Islam distinguishes itself from its predecessors, Judaism and Christianity, by declaring that the Quran is the direct speech of Allah, communicated in inimitable Arabic through the angel Gabriel to Muhammad, the

Messenger of Allah to the Arabs and to the world for all eternity. Over fourteen centuries, the Quran has served as a guide for Muslims in devotion and in life.

This Qur'an makes unmistakably clear that in the eyes of God women are equal of men. Eve is not the temptress of Adam but just as disobedient of God's commands as he. However, in contrast to their relationship with God, the Qur'an varies between generalized declarations and specific decrees. These are addressed to the Prophet and to other males, only rarely to women. A substantial part of the fourth sura deals with relations between men and women in which the latter are clearly subordinated to the former.

The Quran makes clear that marriage is the preferred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and specifies the limits of kinship from which the man may secure a wife. A verse allows him to have four wives, also commends that he treat them equally. Divorce by the husband is permitted in the Quran, but it is carefully circumscribed to ensure the parentage of a child in the womb. For the wife, her recourse in desiring divorce is limited, should her husband agree, to yielding the dowry given her at marriage and waiting for three monthly periods before remarriage.

As to inheritance, a woman's share is half that of the equivalent male heir, although what property she may receive is her own. The half-share concept in inheritance is reflected in judicial matters as well: a woman's testimony is valued as only half that of a man.

Muhammad's desire to see gender equality in Islam which is shown in the Quran was compromised by the attacks of opponents on his wives' openness, which forced their seclusion and the covering of free born women in public to distinguish them from slave.

In the first centuries after Muhammad's death, the expansion of Islamic territory brought the Muslim community into contact with societies having well-established customs of seclusion for elite women. The Muslims conquered the Sassanian impe-

rial center and the Abbasid dynasty of caliphs soon made it their own, thus inheriting the latter's legacy of royal custom and prerogatives. Being guarded by eunuchs, confined to immense palaces, and surrounded by the caliph's innumerable concubines became models for the new persianate practices of the Muslim empire.

The negative attitudes toward women formed by their impose lifestyle radiated through out Abbasid society. Contrary to the Quran, women came to be characterized as the "weaker sex". The veil was associated with seclusion. As Fatima Mernissi aptly writes it, "Sexual segregation divides all social space into male and female spaces, the women's space being private and the men's public, the latter entered by elite women only on limited occasion. The veil is an expression of the invisibility of women on the street, the male space par excellence."

By the way, Muslim women, chronically perceived by non-Muslims as victims, complain, "Western women are always trying to save Muslim women. We want empathy, not sympathy." Muslim women are showing a strong desire to solve their own problems their own way. Many women whom Christians have described as miserably unhappy are in fact happy and content with their lives and would not trade their lives for a Western woman's style of life. In fact, they feel sorry for the Western woman, who they perceive has lost the most precious possessions in life - faith in God and close family ties. So as we approach to Muslim women with Gospel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they are struggling with these problems not because they follow Islam but because they are human beings in today's troubled world like us.

● Key Words: Muslim Women, Hijab, Polygamy, Jahiliyah

## 서론

기독교와 이슬람은 이슬람의 역사만큼이나 길고도 고통스런 관계만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편적으로 이해되나 두 종교의 교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세기까지 이슬람 제국은 황금기를 구가하며 암흑기로 불리워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던 유럽에게 역으로 과학과 철학, 문화적 영향력을 끼쳤고 지금도 그 흔적은 세계 도처에 남아있다.

그러나 13세기 이래 이슬람 제국은 그 세력과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18세기 오스만 제국의 몰락과 함께 서구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비서구 비기독교 세계에 대한 서구 기독교 세계의 우위를 강조하기 위해 서구는 특별히 6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슬람의 여성 문제를 들어 이슬람이 전근대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인 종교임을 강조해왔다.

무슬림 여성들은 서쪽으로는 세네갈에서부터 동쪽으로는 필리핀에 이르는 거대한 무슬림 벨트에 속해 있으며 무슬림들이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와 파푸아 뉴기니, 한국,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 남미에 이르는 세계 무슬림 공동체의 반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슬림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 관행에 대한 비판의 핵심에는 무함마드의 다수의 부인들로 대표되는 일부다처제, 여성 할례문제, 히잡, 부르카 등과 같은 이슬람식 의복의 착용, 여성의 격리, 요즘도 자주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명예 살인 등 여성과 관련된 이슬람의 오래된 전통들이 중심에 있다.

남녀관계의 불평등성과 혼인제도에 있어서 불합리성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서구의 지속적 비판과 달리 무슬림 들은 이러한 제도들의 기원을 근거로 하여 실상은 그것들이 도리어 무함마드 시대에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무슬림들과 비 무슬림들 사이의 큰 시각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무슬림들은 서구인들이 이슬람 종교의 전 근대성을 대표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는 일부다처제가 실제 이슬람 사회에서 낮은 비율로 실천되고 있으며, 무슬림 남성들의 호색성을 나타내 주는 공간인 “하렘” 역시 실

제로는 무슬림 여성들이 직물짜기와 같은 공동 작업을 수행하던 생산적인 구역이었음을 강조한다.<sup>1</sup>

무슬림 여성 문제는 이슬람세계와 서구 기독교 세계간의 갈등 속에서 왜곡되어 사용되어졌고 따라서 무슬림들은 여성 문제는 서구 문명에 의해 왜곡된 이슬람 문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수정되어야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이후 무슬림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저서들이 무슬림들에 의해 발표되어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슬람 이전과 이후의 아라비아 반도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 이슬람이 여성 위상의 변화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슬람 등장이후 이슬람 역사 초기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무함마드의 부인들을 비롯한 여성 지도자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무함마드의 여성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꾸란에 나타난 여성 관련 구절들과 무함마드에 의해 시작된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기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슬람 초기의 여성관이 무함마드의 경쟁자들과 후대의 꾸란 주석가들에 의해 변화되고 왜곡되어왔는지의 여부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현대 이슬람 세계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으나 무슬림 여성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일부다처제,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는 베일에 대한 연구가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21세기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무슬림 여성들에게 선교적으로 다가갈 때 필요한 태도들에 연구를 통하여 이슬람 선교의 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슬람이전 시대의 여성

7세기 이슬람의 등장은 아라비아 반도에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를 “자힐

1. 조희선, 『무슬림 여성』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5) 3-4.

리아” 즉, 무지의 시대로 부름으로써 이슬람의 등장 이 지역에 전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함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슬람은 초기부터 사회적, 도덕적 개혁을 통해 그 이전까지 이 지역에 만연해 있던 부족간의 불화와 분쟁을 극복하고 부족을 넘어서는 이슬람 공동체를 구축하였고, 제도적 개혁을 통해 비합리적인 관행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유일신 알라에 대한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이전 까지 그 지역에 만연해 있던 다신 숭배와 이에 따른 야만적 관행들을 척결함으로써 종교적으로도 한 단계 발전시켰음을 무슬림들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슬림 역사가들의 견해와는 달리 이슬람 이전시대를 문화적으로 완전히 무지했던 시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슬람 이전에도 아라비아 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주변국인 로마,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삼 지역의 사람들과 접촉하여 문화적으로 활발히 교류하였으므로 이슬람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미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힐리아”는 이슬람 이전시대의 사람들이 알라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종교적 무지와 다신을 섬기면서 수없이 행해졌던 비도덕적인 관행들에 대한 도덕적 무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슬람 이전 시대의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슬람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무슬림 학자들은 이슬람 이전 시대에 여성의 지위는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음을 강조한다. 이 시기에 여아들이 산채로 매장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아를 나은 아버지의 수치심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습은 꾸란의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이 검어지며 슬픔으로 가득 차더라” (16:58ff; 60:12). 아랍인이 여아 출생을 반기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아랍 사회의 속성에 기인한다. 부족 간의 전쟁과 복수가 계속되었던 상황에서 여성들은 전쟁이나 복수를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적의 노리개가 되는 위험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 남성은 가문이나 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성을 보호해야 했고 따라서 여아 살해는 아라비아 반도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여건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은 아내들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을 때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여성노예들이 성매매를 위하여 고용되기도 하였다.

반면 서구 학자들은 이슬람 이전시대에 아랍 여성들이 누렸던 높은 지위와 자율성이 도리어 새로운 종교의 출현과 더불어 축소되었다고 주장한다. 소수의 학자들은 일부 다처제가 무제한적으로 성행하였음을 주장하기도 하나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그러한 관습은 부유층이나 왕족들이 특권으로 누리던 관습이었다. 이혼도 상대적으로 쉬웠고 임신 가능한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였던 ‘*idda*’<sup>2</sup>도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당시의 결혼의 형태도 다양해서 모계중심(matrilineal), 부계 중심(patrilineal), 혹은 일처다부(polyandreal)의 결혼이 성행하였다. 모계중심의 결혼의 경우 여성들이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부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이 어머니의 소유가 되었다.<sup>3</sup>

이슬람 이전 시대 아라비아 반도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족 중심의 사회였고 혼인을 통하여 각 가문, 혹은 부족간의 긴밀한 유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어머니가 혈족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아랍인들이 혈족 관계를 “어머니의 자궁”(rahm) 혹은 어머니의 배(batn)로 표현한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sup>4</sup>

부족의 명칭 또한 시조가 되는 남성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나, 적지 않은 부족의 명칭이 어머니의 이름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족의 이름처럼 개인의 이름도 어머니의 이름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어머니의 이름을 따랐던 원인을 이슬람 이전시대에 행해졌던 ‘무뜨아’(mut’ah, 일시적 혼인)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남성 못지않은 지위를 누리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기의 여성들은 사회 속에서는 그다지 높은 지위를 누리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문학 분야에서 특히 시인으로 활동한 여성의 이름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는 하나 남성에 비하면

2.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을 재혼을 하기 전에 “기다리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직전의 결혼에서의 임신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다.

3. Carey Course in Christian-Muslim Relations, 3rd edition, module two (Middlesex, UK: Center for Islamic Studies and Muslim-Christian Relations, London Bible College, 2001), 118.

4. 조희선 (2005), 3.

상당히 제한적인 수에 불과하다.

이 시기의 아랍 여성들이 재산권을 갖기도 하였다라는 증거가 꾸란이나 다른 문헌들 속에서 종종 발견된다. 특히 정착민 여성들은 유목민 여성들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sup>5</sup> 무함마드의 첫 부인이 된 카디자(Khadijah)는 그 대표적인 경우로 그녀는 대상을 거느린 부유한 상인이었다.

이슬람 이전 시대 아랍인들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았고, 전쟁에 참여하여 노획물을 가져올 수 있는 남자에게만 상속하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7세기 초 이슬람 도래 이전 아라비아 반도는 전형적인 유목 문화지역으로 남성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을 터부시하는 전통이 있었다. 여성은 부정과 오염의 원천이자 남성들의 성적 대상으로만 간주되었다. 이슬람 이전 시대 여성들은 상속, 결혼선택, 경제권 등의 권리가 없었으며, 특히 여성 노예는 매매, 임대, 기탁, 선물 등의 형태로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이러한 세계관으로부터 기인하여 이슬람 이전 시대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남성들만 상속권을 가졌고 여성은 상속물의 일부였다. 아버지가 죽으면 장자가 미망인을 상속받았고, 미망인이 계모인 경우 장자는 계모와 결혼하거나 동생 혹은 조카에게 양도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계모 상속권을 가진 장남의 나이가 어린면 그가 성장할 때까지 계모는 재혼할 수 없고 그가 결정을 내릴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여아살해와 계모를 취하는 권리 등은 이슬람 이전 사회의 가장 악덕한 관습이자 병폐였으며 무함마드가 사회개혁을 목적으로 이슬람의 ‘평등’을 구현하도록 한 동인이 되기도 했다.<sup>6</sup>

이슬람 이전 시대의 아라비아 반도는 다양한 관습과 종교를 지닌 다양한 부족이 공존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시대 여성의 지위 또한 한 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여성의 전쟁 참여, 예언자로서의 종교적 역할, 보호자로서의 사회적 역할 등은 남성에게 비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여성들도 어느 정도 사회참여를 하였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5. Ibid., 19.

6. 김정아, 『이슬람의 여성보호관』, 김대성, 조희선외, 『이슬람 사회의 여성』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4-5.

무슬림 학자들이 이슬람 이후 여성의 지위가 격상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 이전 시대 여성이 ‘낙타와 칼’ 다음이었다고 묘사한 것은 지나친 과장으로 보인다. 자힐리아 시대의 역사가 무함마드 사후 1세기가 지나서야 무슬림 사기들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보건대, 이들이 이슬람 이전 시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이슬람의 등장과 여성관의 변화

#### 1. 무함마드의 부인들

무함마드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카디자와 가장 사랑받은 부인이었던 아이사의 결혼과 삶은 이슬람의 등장전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sup>7</sup>

무함마드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카디자는 부유한 상인으로 이미 두 번의 혼인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전남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아 상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결혼 전 카디자에 의해 고용되었던 무함마드는 메키와 시리아를 오가는 교역을 담당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믿는 유일신 신앙을 접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5세 연상이었던 카디자와의 결혼으로 유복자로 태어나 고아로 어렵게 자라났던 무함마드는 생애 처음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이는 그의 종교적 심성을 자극하여 명상과 기도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히라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첫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가 두려움에 떨며 실성한 사람같은 반응을 보일 때에도 그를 격려하며 그의 선지자성을 인정하였고, 카디자는 역사상 첫 무슬림 개종자가 되었다.

그녀는 무함마드의 전 생애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는데, 무함마드의 부인

---

7. Leila, Ahmed, *Women and Gender in Islam*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42.

들 중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이샤조차도 이미 사망한 카디자에게 질투를 느낄 정도로 그녀의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무함마드는 평소에도 “유대인 중 가장 뛰어난 여성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무슬림 중 가장 뛰어난 여성은 카디자이다”라고 말하였다.<sup>8</sup> 카디자는 “신자들의 어머니”, 혹은 “여성 중에 가장 뛰어난 자” 등으로 불리우며 존경을 받고 있는데 후자를 의미하는 *khair un-nisa*는 지금도 여성들의 이름으로 가장 선호되는 이름이다. 여성들을 포함한 현대의 무슬림들도 카디자를 이슬람 역사 초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강조하며 존경을 표한다.<sup>9</sup>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선지자로서 계시를 시작했을 때 카디자는 이미 50대에 이르렀고 따라서 경제적 독립성, 남성 후견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결혼을 중매한 것, 그녀보다 15살이나 연하인 무함마드의 혼인 등에 나타난 카디자의 행동 양식이나 삶의 특징들은 이슬람적이기 보다는 자힐리아 시대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함마드는 카디자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다른 부인을 두지 않았는데, 카디자가 죽자 무함마드는 이모 카울라를 통하여 사우다와 후에 자신의 후계자가 된 1대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의 어린 딸 아이샤에게 청혼하였는데,<sup>10</sup> 이 이후의 무함마드의 결혼은 남성 후견인의 주도하에 남성우월적인 일부다처제라고 하는 전형적인 이슬람식 결혼 제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1</sup>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그 이후로 무슬림 여성의 삶에 수많은 제한과 속박의 첫 경험자는 선지자의 세 번째 부인이 되는<sup>12</sup> 아이샤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무슬림 부모에게서 태어나 무함마드와 9세 혹은 10세에 결혼한 아이샤는 다른 부인들과 같이 베일을 쓰고 격리가 되는 새로운 관습을 지켜야 했다. 삶의 자율성과 주도성에 있어서 카디자와 아이샤의 차이는 그 이후 이슬람화된 아랍여성들에게 미친 이슬

8. 김정아 (2004), 9.

9. Annemarie, Schimmel, *My Soul is a Woman* (New York: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1999), 27.

10. 조희선 (2005), 21.

11. Ahmed (1992), 42.

12. 아이샤보다 보다 먼저 무함마드와 결혼했던 사우드는 남편보다 연상으로 결혼 후 오래지 않아 사망하였다.

13. Ahmed (1992), 43.

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전조가 되는 것이다. 카디자가 자힐리야 시대의 자율적 여성상을 대표한다면 아이샤는 자힐리야 시대에서 이슬람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여성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의 종교적 지식의 전승자 역할을 통해 종교적 영향력과 전쟁에 직접 참여하며 보여준 정치적 영향력은 전 시대의 예를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을 공동체의 중요사를 결정하는 권위자로 참여시키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이샤 이후 이슬람 사회에서는 점차적으로 사라져간 관행이었다.<sup>14</sup>

아이샤 외에도 무함마드는 후에 2대 칼리프가 된 우마르의 딸 하프사, 뛰어난 미모로 무함마드를 사로잡았던 과부 움무 살라마, 서구인들로 하여금 무함마드를 호색함으로써 비판케 한 원인이 된 자신의 양아들의 부인인 자이납 빈트 자흐쉬, 유대인 여성 라이하나와 사피야,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무함마드의 유일한 아들을 낳았던 마리암과 같은 많은 여성들과 혼인하였다. 이렇듯 무함마드는 부족간의 유대 강화, 기존의 타 종교인들과의 협력 혹은 단순히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많은 여성들과 혼인하였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아이샤를 제외한 모든 부인들이 과부이거나 이혼녀였던 점을 들어 예언자의 혼인이 꾸란에 계시된대로 과부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15</sup>

## 2. 여성에 대한 이슬람의 원형적 이상의 변화

초기 이슬람 역사에는 무함마드의 부인이었던 카디자와 아이샤를 비롯하여 뛰어난 여성들의 사회 활동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아이샤는 무함마드의 순나와 관련하여 무함마드의 교우들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무함마드의 개인적 삶에 대한 지식의 많은 부분은 아이샤의 공헌이다. 656년에는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와 그를 따르는 무리와의 소위 “낙타전쟁”에 낙타를 타고 참여하여 순니파 전통에서는 그녀의 참전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다.<sup>16</sup>

---

14. Ibid.

15. 조희선 (2005), 21-27.

16. Schimmel (1999), 28.

예언자가 가장 사랑한 딸이었던 파티마는 시아파의 기록은 물론 순니파의 기록에도 도덕적 여성의 이상으로 등장한다. 이 외에도 뛰어난 꾸란 주석가였던 움 와라카(Umm Waraqa)는 소수의 여성 이맘 중의 한 명이었고 소수의 이와 같은 여성들이 기록에 등장하기도 한다.<sup>17</sup> 물론 이러한 기록들이 예언자 주변의 여성들을 포함한 소수의 여성들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슬람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후대에는 칼리프의 부인들에 대한 변변한 기록조차 없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면서 이슬람의 전개와 함께 여성의 역할과 권한이 축소되어 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이슬람의 원형적 이상은 14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무슬림 세계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다. 후대의 학자들은 여성을 싫어하는 전통이 예언자 시대를 전후로 아랍 및 지중해 지역에서 뿌리 깊게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무함마드 사후 무슬림 남성들의 필요성에 의해 더욱 과장되고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슬림 남성들이 무슬림 여성들과 권력 투쟁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라면 위의 가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예언자의 교우였던 아부바크르가 “여성에게 일을 맡기는 자는 결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하디스의 구절이 싸이흐(Sa-hih)<sup>18</sup>가 된 이후로 그것은 명백한 진실이 되어 논쟁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하디스 구절은 페르시아인 키스라(Kisra)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의 딸에게 권력을 넘겨주려고 한 사건에 대해 예언자가 제시한 의견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무함마드가 키스라의 사망과 그의 딸에게 권력이양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인데 아부바크르는 이것을 무함마드의 여성관으로 확대해석함으로써 무슬림 여성들의 권리를 축소시키려 했고 이 전에 있어서 그는 확실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무슬림 남성들은 예언자의 아내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권익 주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남성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고 무함마드의 아내들로부터 시작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과 규정들이 제안되어졌다. 그

17. Yvonne, Yazbeck Haddad, and John Esposito, eds., *Islam, Gender, and Social Change*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xiii.

18. 아랍어로 ‘옳다, 확실하다, 진짜이다’ 라는 의미로 하디스의 진위를 선별하여 6개의 싸이흐가 있다. 그 중 부카리의 싸이흐와 무슬림의 싸이흐를 가장 권위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제 2대 칼리프인 우마르를 비롯한 기독교 남성들이 여성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여성에게 히잡을 착용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다.<sup>19</sup>

#### IV. 꾸란에 나타난 여성관

세계 종교 중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한 유일신교인 이슬람은 경전인 꾸란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모방할 수 없는 언어인 아랍어로 아랍인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영원한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임을 강조함으로써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꾸란의 내용을 계시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신자들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며 이는 또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 의해 빚어진 오류를 바로잡는 수단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슬람의 경이로움은 수세기에 걸쳐서 비록 아랍어는 변화를 겪어도 꾸란의 내용은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지켜진 교리적 일관성에 있다고 자부한다.<sup>20</sup> 15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무슬림들은 꾸란을 예배와 삶의 지침으로 삼아왔다. 하나님은 꾸란을 통하여 명령하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징벌을 경고하지만 그들이 돌이켜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서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약속한다.

꾸란은 경건하고 신실한 남성에 대한 언급과 동일하게 “경건하고 신실한 여성”인 *mu'minat*, *muslimat*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sup>21</sup> 꾸란에는 남녀가 동등하며 영적으로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많은 구절이 등장한다(수라33:35; 16:97; 43:69-70; 9:72; 38:51-52; 83:23-26).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하여 안네마리 쉘멜을 비롯한 학자들은 꾸란에 묘사된 여성의 지위는 이슬람 이전시대보다 분명히 향

19. Fatima, Mernissi, *The Veil and the Male Elite: A Feminist Interpretation of Women's Rights in Islam* (New York: Basic Books, 1991), 98.

20. Herbert L., Bodman, and Nayereh Tohidi eds., *Women in Muslim Societies: Diversity Within Unity*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5.

21. Shimmel (1999), 54.

상된 것으로 평가한다.<sup>22</sup>

꾸란은 먼저 남녀의 동등한 창조를 강조한다. “오 사람들이여 하나의 영혼에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그 배우자를 창조하시며 또한 그 둘로부터 많은 남자와 여자를 번성시킨 너희의 주를 경외할지이다.” (수라4:1). 즉 하나님이 남성과 그 배우자를 모두 한 영혼에서 창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죄를 거부하는 이슬람은 인류 최초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이브가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라 7:19-25).

이상적인 무슬림상을 설명하는 유명한 꾸란의 구절은 각각의 경우에 남성과 여성 모두를 언급한다 (수라 40:8-9; 3:195; 4:124).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인 다섯 가지 기둥- 신앙고백, 예배, 금식, 구혼세, 순례- 도 남성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며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임신부에게 위험이 될 경우 금식을 면제해 주는 정도이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꾸란은 다양한 지침을 주고 있으며 이는 선지자나 다른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여성들에게 직접 주어지는 경우는 드물다.<sup>23</sup> 꾸란 4장의 중요 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적임을 밝히고 있다: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써 부양하느니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다를 것이며 남성이 부재시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가볍게 때려줄 것이라 그러나 다시 순종할 경우는 그들에게 해로운 어떠한 수단도 강구하지 말라 진실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니라”(수라4:34).

꾸란은 또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이 가장 바람직한 결혼의 형태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네 명의 부인을 허락하는 구절에서도 그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우해야할

22. Ibid.

23. Bodman (1998), 5.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4:3; 22f; 129) 이러한 것이 불가능함을 암시하여 사실상 이 구절이 일부일처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무슬림들도 있다.<sup>24</sup>

남편이 제기하는 이혼이 꾸란에 허용되고 있으나, 태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아이의 부모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자세한 제한을 두고 있다. 여성에 의해 제기되는 이혼은 제한적이며,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결혼시에 받았던 신부대를 돌려주고, 재혼까지는 삼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다. 꾸란은 아울러 남편들이 지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아내들을 혹독하게 다루지 말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2:228-233, 236-237, 241; 4:35, 19).

상속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의 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나, 여성이 상속받은 것은 여성의 소유가 된다. 상속의 분배에 관한 꾸란의 조항들(4:7, 11-13, 176; 2:240)이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이것과 관련된 이슬람 법학자들의 논의가 수세기를 거쳐 계속되어 오고 있다. 남성의 권리가 여성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이러한 규칙들은 다른 이슬람 법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의 증언은 남성의 증언의 반에 해당한다 (2:282). 검손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같은 말로 권고를 받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보다 자세하다(24:30-31).

무함마드의 아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례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선지자의 아내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여성에 대한 형벌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이 부과되며 의로운 행동에 대한 상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존재로 선언되었으므로 말을 가려서 하고, 집안에 머무르며, 경건한 행실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sup>25</sup> 그들이 남성과 이야기를 할 때는 발을 쳐야했고, 과부가 되는 경우, 재혼할 수 없었다.

무슬림들은 선지자의 아내들과 관련된 꾸란의 구절들이 다른 많은 구절들처럼 특별

24. 이집트의 개혁주의 사상이 무함마드 압두(Muhammad 'Abduh, 1849-1905)는 "비록 한 명 이상의 부인을 취하는 것이 이슬람에서 허락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아내들에게 공정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부다처는 금지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일부다처제가 이슬람 공동체가 처했던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에는 이 제도에 대한 해석과 적용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5. Bodman (1998), 6.

한 때와 장소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어떤 구절들은 이슬람 이전 시대에 행해졌던 관습들을 수정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수혼(levirate: 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관습)과 여아 살해(female infanticide) 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것은 이슬람에 의해 시작된 개혁으로 간주되어 모든 시대에 어느 곳에서든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보편화되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이슬람의 모든 법은 무함마드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예외는 선지자에게만 부여되는 독특한 권한이었다.<sup>26</sup>

## V. 이슬람 제국의 확장이 미친 여성관의 변화

무함마드 사후 첫 100년 동안 이슬람 제국은 확장되었고 이를 통하여 엘리트 여성을 격리 시키는 전통이 이미 확립되어 있던 문화권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무슬림들은 사산조 페르시아의 중심부를 정복하여 그들의 유산과 왕국의 전통을 자신들의 것으로 차용하였다. 나비아 애봇(Nabia Abbott)의 고전적인 저서인 바그다드의 두 왕비(*Two Queens of Baghdad*)는 메디나의 엘리트 여성들과 바그다드에 있던 압바스 조의 왕비 사이의 엄청난 지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내관의 호위를 받으며 수많은 후궁들과 함께 거대한 궁전 속에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왕비들의 모습은 곧 페르시아화한 무슬림제국 여성들의 모델이 되었다. 그들이 배후에서 누리는 권력과 부는 모방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여성들에게 부과된 부정적인 이미지는 곧 모든 여성들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어 갔다. 꾸란의 가르침과 달리 여성은 곧 “연약한 성”(weaker sex)으로 특징지어졌고,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는 하디스의 증언에 따라 이러한 인식이 고정되어 갔다.<sup>27</sup>

무슬림 남성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첩을 두는 관습은 압바스 조의 사회에서 여성 노예들을 통하여 여성의 위상을 격하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아랍 무슬림 정복자들

26. Ibid.

27. Bodman (1998), 9.

은 그들 조상들의 관행을 이용하여 여성 노예들을 가수와 무희로 활용하는 방대한 사업을 시작하게 하였다. 결혼의 가장 큰 의미는 알라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꾸란의 명령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후처들의 경우 자녀를 생산하는 역할보다는 오직 남성들의 성적욕구만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전락되어 갔다. 후처들이 아이를 갖는 것은 오히려 주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는데 임신한 노예를 팔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부유한 남편을 두어 사회적 지위는 높았으나 후처들의 경우 다른 모든 부인들과 함께 남편의 쾌락을 만족시켜 사랑을 얻기 위한 끝없는 경쟁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베일은 여성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의 격리와 연관된 관습이다. 파티마 메니시(Fatima Mernissi)가 바로 지적한대로 “성적 격리는 모든 사회적 공간을 여성과 남성의 공간으로 분리시켰다. 여성의 공간은 사적인 것이고 남성의 공간은 공적인 것이어서 오직 엘리트 여성만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이 공적인 공간에 들어감을 허락받았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베일은 거리에서, 즉 남성의 공간에서 여성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sup>28</sup>

압바스 조의 후궁들의 베일 착용이 당시의 문학과 후대의 기록들에 의해 교태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으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베일 착용은 기본적으로 격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성의 삶과 행동은 남성의 “명예”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사적인 영역임을 나타내는 것이다.<sup>29</sup>

## VI. 여성 억압을 위한 이슬람의 장치

### 1. 히잡

영어로 흔히 베일 (veil)로 번역되는 무슬림 여성의 가리개 히잡(hijab)을 착용하는

---

28. Fatima, Mernissi, *Beyond the Veil: Male-Female Dynamics in Modern Muslim Societ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97.

29. Bodman (1998), 10.

관습은 이슬람 종교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성이 베일을 착용하는 관습은 중동지방에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풍습의 일부였다. 학자들은 다양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여성의 베일 사용은 중동과 지중해 연안의 사산조 페르시아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반적인 풍습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sup>30</sup> 베일의 형태와 기능, 의미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앗시리아와 페르시아에서는 베일이 계급이나 신분, 결혼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사용되었다. 앗시리아 법에는 “베일을 써야하는 여성과 써서는 안되는 여성”을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다. 즉, 귀족출신과 첩, 노예 등 신분에 따라 베일 착용의 의무가 정해졌고, 성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여성과 매춘부, 노예 등 허용되는 여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베일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베일은 그 여성이 어느 남성에게 속한 여성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상징물이었던 것이다.<sup>31</sup>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던 남성의 아내나 딸들은 베일을 착용해야만 했다.<sup>32</sup>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스와 로마의 상류층 여성들도 모두 베일을 착용하였다. 이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고 침묵하면서 남성의 의견에 순종해야만 했다. 남성들은 베일 착용 여부에 따라 여성을 다르게 대했는데 여성이 베일을 착용하지 않으면 남성을 유혹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sup>33</sup> 그리스는 성 계급사회로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여 여성이 정신적,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은 이후 현대 서구사상의 기초를 이루기도 하였다.<sup>34</sup> 그리스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철저히 분리되어 여성이 가까운 친척들 외의 남성에게 보여져서는 안되며, 가정에 머무르며 낮선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베일로 가리도록 하였던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결혼한 여성은 결혼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무엇인가를 머리에 착용해야 했다. 가리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매춘부임을 암시하거나 아니

30. 조희선 (2005), 161.; 오은경, 『베일 속의 이슬람 여성』 (서울: 프로네시스, 2006), 55.

31. 오은경 (2006), 61.

32. 조희선 (2005), 161.

33. 오은경 (2006), 62-63.

34. 조희선 (2005), 161.

면 남편을 구하는 처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1세기말경 어느 랍비가 시장에서 베일을 쓰지 않은 여성에게 벌금형을 내렸다는 기록은 당시의 사회상을 전해주는 자료이다. 이러한 풍습은 팔레스타인 지역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그곳을 벗어난 유대 공동체 내에서 지켜졌다.<sup>35</sup>

한편 비잔틴 사회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발전 단계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명 속에 융합된 문화적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잔틴 제국은 로마의 제도와 이념을 이어 받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헬레니즘 문화를 이어 받았다. 뿐만아니라 동쪽으로 사산조 페르시아와 접촉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인 아랍인과 터키인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이루어 이를 통하여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되어진 시기였던 것이다. 여성들의 베일 착용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잔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관행이다.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육체적인 것을 터부시하던 비잔틴의 전통에 따라 여성의 육체는 가려져야 했던 것이다. 여성의 몸은 가려져야 하는 것, 혹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규정되면서 마침내는 폼피되고 여성비하의식으로 발전해갔다.<sup>36</sup>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존재로 비하되었고 이러한 비잔틴적 여성관은 이 문명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이슬람 문명의 전통적 여성관 형성에 영향을 주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듯 베일은 이슬람 이전부터 여러 분명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슬람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히잡”의 사전적 의미는 “나누고 보호하는 것”이다. 아랍어로 눈썹이 하지만 (*Hajiban*)인데, 두 개의 눈썹은 이마와 얼굴을 나누고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금지하고 문턱을 세우며 보호하는 기능의 히잡이 여성의 인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 이유를 한 마디로 논하기는 어렵다.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게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히즈라 6년에 무함마드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아이샤는 반대파들에 의해 소위 거짓말 사건(*al-iffk*)<sup>37</sup>

35. 오은경 (2006), 63.

36. 오은경 (2006), 65.

37. 바누 무스탈리크 정벌에 따라간 아이샤가 조개목걸이를 잃어버려 본 대열과 떨어져 길을 잃었던 사건으로 샤프완이라는 청년이 그를 구해 본 대열에 합류하도록 도왔다. 무함마드의 반대파들은 아이샤가 샤프완이 불륜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예언자의 부인으로서의 자격여부를 문제시했다: 김정아 (2004), 14.

에 말려들게 되고 결국 그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아이샤를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여성들은 자유여성이나 노예 여성을 불문하고 거리에서 습격의 대상이 되곤 하였는데 이것은 이슬람 이전의 악행이 근절되지 않은채 이슬람 시대에도 이어져 오던 것이었다. 무함마드의 부인들조차도 이런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고 이슬람 이전의 악습으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할 수 없었던 무함마드는 우선 자신의 아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결국 아이샤의 거짓말 사건이후 무함마드는 아내들과 자유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도록 명한다. 하지만 여성노예는 베일을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신변보호를 주장했던 이슬람의 주장은 무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 노예는 길에서도 남성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히잡 착용의 명령은 결과적으로 무함마드가 추창했던대로 모든 믿는 자는 동등하다는 이슬람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었다.<sup>38</sup>

무함마드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이상적 사회를 꿈꿨으나 이것은 그의 정적들의 사고와는 큰 차이가 있는 이상이었다. 무함마드의 아내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축과 그의 교우이자 기득권층인 남성의 축은 무함마드를 사이에 두고 정반대의 길을 추구하였다. 이슬람 제국의 확장을 위한 전쟁으로 정치적 난관에 처해 있던 무함마드는 결국 2대 칼리프가 되는 우마르의 주장을 수용하여 히잡 착용을 명하게 된다. 우마르는 여성에 대해 무함마드가 추구했던 이상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 국가에서 노예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자유인으로 격상시켜줄 원대한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마르를 비롯한 무슬림 남성들은 이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 특히 메디나의 이븐 우바이야 같은 인물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여성들에게 베일을 착용하도록 부추긴 인물이다. 이븐 우바이야는 무함마드의 부인들로서 강력한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이샤나 움 살라마가 계속해서 무함마드에게 여성의 자유를 요구하고, 무함마드가 이를 수용한다면 여성은 자유롭게 거리에 나설 것이고, 그렇다면 더 이상 여성을 납치해서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예언자의

---

38. 김정아 (2004), 14-15.

아내를 공격함으로써 그녀들도 그런 공격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언자가 인정하고 여성에 대한 그의 이상을 수정하도록 하였다.<sup>39</sup>

꾸란에서 “히잡”이라는 단어는 모두 일곱 번 언급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꾸란에서의 히잡은 ‘분리’를 의미한다.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숨은 커튼이나 장막을 의미하기도 하고(수라19:17), 이슬람 초기 우마르의 조언에 따라 예언자의 부인들에게 부과되었던 분리를 의미하기도 한다(33:53; 33:32).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저주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히잡에 의해 분리될 것이다(7:46). 결국 히잡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체적 구분만이 아니라, 거룩함과 그렇지 못함을 구분하는 추상적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무함마드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슬람 공동체 내의 질서와 품위를 위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거룩함과 불경함을 구별하고자 이러한 제도를 설치하였으나 결국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분리를 통한 여성비하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 2. 일부다처제

일부다처제는 현재까지도 무슬림 여성을 억압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간주되어서 비 무슬림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일부다처는 고대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중국에서도 허용된 제도였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관습이 있어서 탈무드의 가르침에 의하면 “한 남자는 여러 명의 부인들과 혼인할 수 있다. 랍비가 말하길, 만약 그가 부인들을 부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합법적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남자들은 네 명 이상의 부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sup>40</sup>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과 종교지도자들 역시 일부다처를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복수의 부인을 두었고, 다윗은 100명의 아내를 두었으며, 솔로몬 왕도 700번의 혼인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 이전 시대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일부다처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슬람

---

39. Mernissi (1991), 186.

40. 조희선 (2005), 151.

이전 시대 남성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여러 명의 여성을 성적 상대로 취하고 쉽게 버리는 악습이 만연해 있었다. 남성은 아무런 규제나 조건 없이 원하는 만큼의 여성들과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잦은 부족전쟁으로 야기된 부족한 남성의 수를 보충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이슬람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관행은 근본적으로 재정의 되었다. 이슬람 사회에서 일부다처의 출발점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어려운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복지 정책이었다. 이슬람 초기에는 정복전쟁으로 다수의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절박했다. 일부다처를 허용하는 꾸란의 구절은 4장3절이 유일한 것이다: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처하여 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좋은 여성과 결혼하라 두 번 또는 세 번 또는 네 번도 좋으리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공평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성이 거나 너희 오른 손이 소유한 것이어늘 그것이 너희를 부정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보다 적합한 것이니라”.

역설적으로 무슬림 남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부다처제는 곤혹스런 제도였다. 7세기는 부족간의 전투, 이슬람 포교 전투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더욱이 여성 노예의 매매가 가능했던 까닭에 성적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보자면 무슬림 남성들이 굳이 여러 명의 부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일부 무슬림 학자들은 일부다처제는 남성들에게 이득보다는 다수의 아내를 책임져야하는 의무적 권유였다는 주장도 하기도 한다.<sup>41</sup> 학자들은 그 당시 무슬림 남성에게 ‘일부다처제’는 허용보다는 권유의 의미가 컸던 것으로 해석한다. 일부다처제는 진정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여성을 가정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복지수단이었고 전쟁으로 인해 생긴 과부와 고아의 구제가 절실하게 요구되던 시대에 재력이 있는 무슬림 남성이 자신의 부인만을, 내 가족만을 보살피는 것은 이기적인 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sup>42</sup>

더 나아가 무함마드는 일부다처제가 탐욕과 결합되었을 때 초래할 부작용과 위험성을 꾸란에서 경고하고 있다. 부인을 네 명까지 취할 수 있으나, 그들에게 동등한 대우

---

41. 김정아 (2004), 22.

42. Ibid.

를 해 줄 자신이 없으면 이를 취하지 말도록 명했다. 또한 무함마드는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만연해 있던 몇 가지 다른 형태의 일부다처 즉, 두 자매와 동시에 혼인한다든가 숙모와 혼인하는 것 등을 금지시켰다.<sup>43</sup>

그러나 이슬람 제국이 팽창되고 남성 중심사회의 권력 집중이 심각해지면서 일부다처제는 그 순수한 출발의도와는 달리 일부 무슬림 남성들의 그릇된 해석으로 본래의 가치를 잃었다. 일부다처제는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안이자 복지정책이었고 현재 이슬람 세계에서 95%이상의 무슬림들이 일부일처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악용하고 왜곡한 일부 무슬림 남성들과 반 이슬람적인 서구인들이 이 제도를 이슬람 인권의 낙후성을 대변하는 제도로 왜곡 선전함으로써 오늘날 그 본래적 의미를 상실한 채 이슬람의 전근대성과 여성 인권유린의 상징적 제도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 세계에서도 비 이슬람권과 마찬가지로 가장 보편적인 혼인제도는 일부일처제이다. 튀니지나 터키 같은 일부 이슬람 국가는 법으로 일부다처를 금하고 있으며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역시 공무원들의 일부다처를 금하고 있다.<sup>44</sup>

그러나 이슬람 세계 가족법에 나타나는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조건하에서 일부다처를 허용하는 것은 여전히 이슬람 세계의 정통적인 입장이다. 일부다처의 금지는 꾸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일부다처의 허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부다처의 비율은 3%를 넘지 않는다.<sup>45</sup> 무슬림 페미니스트 조차도 사라져가는 일부다처제의 폐지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정도이다. 도리어 오늘날 이슬람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이혼문제이다. 남성들이 비현실적인 일부다처보다는 이혼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에 의해 남용되는 이혼권을 제한하고, 여성들도 원할 때에 이혼을 얻어낼 수 있는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투쟁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

43. 조희선 (2005), 155.

44. 조희선 (2005), 152.

45. 조희선 (2005), 159.

이슬람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여성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보호하며 배려하고자한 시도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무함마드의 의도를 남성중심 사관의 주도자였던 법학자들이 훗날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무게를 얻고 있다. 파티마 메니시(Fatima Mernissi)는 아부 바크르, 아부 후라이라와 같은 무슬림 남성들이 각기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예언자의 하디스를 반 여성적인 방향으로 유도했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무슬림 페미니스트인 라일라 아흐마드(Leila Ahmed)도 후대 학자들이 이슬람의 원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고 외래 문물의 도입으로 남성 우월주의 사관이 유입되어 ‘사실’을 그들의 의도대로 왜곡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메니시나 라일라 아흐마드와 같은 학자들은 현재 무슬림 여성의 인권은 낙후되어 있지만 예언자 무함마드는 본래적으로 ‘여성보호정책’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립시키려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46</sup>

## VII. 결론

비 무슬림들로부터 언제나 “희생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온 무슬림 여성들은 “서구 여성들은 언제나 무슬림 여성들을 구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동정(sympathy)이 아니라 공감(empathy)이다.” 라고 불만을 토로한다.<sup>47</sup> 무슬림 여성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 무슬림 페미니스트 운동이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면서도 여전히 이슬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여성 선교사들을 통해 무슬림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놀랍게도 서구 미디어가 과장하고 강조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어느 여성이나 어려움과 관심을 가질 법한 문제들로 무슬

---

46. Carey Course (2001), 120.

47. Hanifa, Deen, *Caravanserai: Journey Among Australian Muslims* (Sydney: Allen & Unwin, 1995), 124. Love, Fran and Jeleta Eckheart eds., *Ministry to Muslim Women: Longing to Call Them Sister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00), 12. 서 재인용.

림 여성들도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선교사들은 “그렇다면 무슬림 여성들은 전혀 종교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에는 관심이 없는가?” 혹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무슬림 친구들과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혹은 “기독교 사역자들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할만한 지적 인 능력을 갖춘 무슬림 친구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가?” 등 과 같은 다양한 분석과 반성이 이루어졌으나 다수가 동의한 결론은 서구 비무슬림 세계가 관심을 갖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들은 지적인 일부 계층의 관심사이고 대부분의 무슬림 민중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처럼 가족과 관련된 사소한 일상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sup>48</sup>

앞서 언급한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들이 가장 예민하게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들은 그들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그것이 가족사에 영향을 미칠 때에만 관심을 갖게되는 것은 비단 무슬림 여성들만의 특징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서구화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그들의 문화, 무력충돌, 피난생활, 혹독한 가난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하게 무슬림 여성들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가족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 모든 국제 분쟁의 회오리 속에서도 여성들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칠까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아라비아해와 북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과 몰디브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수많은 무슬림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고민하고 괴로워 한다:

남편감을 찾아 결혼하고 그 남편을 지키는 일.

자녀양육.

남편의 중독(주로 알콜중독).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위기.

무력감.

---

48. Love (2000), 13.

사회적 압력,

직장과 가정생활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위와 같은 문제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문제이며 오히려 비무슬림 서구사회에서 그 심각성이 큰 문제들이기도 한 것이다.

특별히 이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무슬림 여성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그들이 무슬림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무슬림을 억압에 매여 사는 불쌍한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쌍하고 불행한 죄인으로 묘사하는 무슬림 여성 중 대다수는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며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자신들의 삶을 서구 여성들의 삶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도리어 그들은 서구 여성들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가족과의 유대를 잃어 버렸다고 그들을 동정한다.<sup>49</sup>

그렇다면 무슬림 여성들은 위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먼저는 그들이 믿는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한다. 무슬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종종 이것을 간과하는데 꾸란은 하나님의 용서에 이르는 길은 오직 회개뿐이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는데 그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대속자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갖는 의미를 무슬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중보자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인 것이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를 기억하고 외치는가? *Bismallah al-rahman al-rahim* (자비롭고 은혜로운신 알라의 이름으로).

---

49. Love (2000), 15.

두 번째로 그들은 영적인 세계, 혹은 신비로운 힘, 주술 등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무슬림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민속 이슬람 (Folk Islam, Popular Islam)의 세계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관행들은 정통 이슬람에 의해서는 거부되고 있으나, 특별히 글자를 읽을 줄 몰라 평생 꾸란 한 줄도 제대로 접해 보지 못한 무슬림 여성들이 보다 쉽고 가깝게 의존하는 해결책인 것이다. 병든 자를 위해 귀신을 쫓거나 주술을 행하는 일은 이미 무함마드 시절부터 행하여져 왔던 관행으로 아 이사는 무함마드가 말년에 병으로 고생하자 특정 꾸란의 구절-병에 효험이 있다고 믿 어지는- 을 쓴 종이를 물에 씻어 그 잉크가 녹아진 물을 무함마드에게 마시우거나 그의 얼굴에 뿌렸다는 전승이 전해져온다. 이와 같이 일반 무슬림들 특히 가족의 안위와 건강을 염려하는 무슬림 여성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에는 주술과 마술 등에 의존하는 것이다.

가정의 행복, 자녀양육문제, 남편과의 관계, 좋은 신랑감을 찾는 것,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는 것, 질병과 재난을 극복하는 것,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자녀들에게 미치는 물질주의와 세속문화의 영향에 대한 염려, 오늘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등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안고 있는 이슈들과 동일한 이슈들로 무슬림 여성들 역시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의 관심사가 두 종교의 여성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 WCC의 기독교-무슬림간의 대화 모임을 이끌어 왔던 테일러(John V. Taylor)는 두 종교간의 대화가 어렵고 생산적이지 못한 이유를 그들의 관심사의 차이에서 찾는다. 즉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이 부인하는 삼위일체론이나, 기독교, 속죄론 등에 대한 신학적 토론에 관심을 두는 대신, 무슬림 들은 그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얼마나 기독교 서구인들에 의해 왜곡되어왔으며 불공평하게 대접받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여서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보호아래 무슬림 여성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희생과 인권 유린과 무자비함을 돕고 싶어 하는 반면 무슬림 여성들은 그들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가정사의 문제들에 대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함께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로서의 연대를 가지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얻어지는 구원으로 가는 넓은 길 (straight path, *sharia*)을 찾아가는 여행의 동료 순례자로서의 유대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와 동일한 인생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이에 더하여 종교가 주는 억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질그릇 속의 보화”같은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사역을 통하여 4000년 전 상처 입은 한 여성 하갈을 위해 사막에서 샘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세계 도처에 있는 연약한 여성들을 위해 생명과 신선한 물을 쏟아 부어 주심을 경험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엘 로이(*El Roi*), “나를 보시는 주”로 고백하고 나도 그를 본다고 고백한 사천년전 하갈의 고백이(창16:13) 우리 시대의 하갈의 딸들<sup>50</sup>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50. Miriam, Adeney, *Daughters of Islam: Building Bridges with Muslim Wome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2), 21.

## ● REFERENCES CITED

- 김정아, “이슬람의 여성보호관”, 김대성, 조희선외, 『이슬람 사회의 여성』,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 오은경, 『베일 속의 이슬람 여성』, 서울: 프로네시스, 2006.
- 조희선, 『무슬림 여성』,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5.
- Adeney, Miriam, *Daughters of Islam: Building Bridges with Muslim Wome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2.
- Ahmed, Leila, *Women and Gender in Islam*.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Bodman, Herbert L., and Nayereh Tohidi eds., *Women in Muslim Societies: Diversity Within Unity*.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 Carey Course in Christian-Muslim Relations, 3rd edition, module two, Middlesex, UK: Center for Islamic Studies and Muslim-Christian Relations. London Bible College, 2001.
- Deen, Hanifa, *Caravanserai: Journey Among Australian Muslims*. Sydney: Allen & Unwin, 1995.
- Haddad, Yvonne Yazbeck and John Esposito, eds., *Islam, Gender and Social Change*.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Love, Fran and Jeleta Eckheart eds., *Ministry to Muslim Women: Longing to Call Them Sister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00.
- Mernissi, Fatima, *Beyond the Veil: Male-Female Dynamics in Modern Muslim Societ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The Veil and the Male Elite: A Feminist Interpretation of Women's Rights in Islam*. New York: Basic Books, 1991.
- Schimmel, Annemarie, *My Soul is a Woman*. New York: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1999.